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0년 3월 전 화 051-510-1501
발행인 김중수 편집인 권순복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부 전 화 051-510-1932

학사일정

2020. 3. 16.(월)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3. 23.(월)~ 27.(금)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3. 27.(금)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4. 13.(월)~ 20.(월)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W)
4. 17.(금)	2019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4. 20.(월)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3선
4. 27.(월)~ 5.2.(토)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5. 11.(월)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2선
5. 15.(금)	개교기념일
5. 26.(화)~ 28.(목)	2020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수강신청
5. 28.(목)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2/3선
6. 22.(월)~ 27.(토)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6. 28.(일)	하키휴가 시작
6. 30.(화)~ 7.27.(월)	2020학년도 여름계절수업
7. 2.(목)	2019학년도 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8. 12.(수)~ 14.(금)	2020학년도 2학기 1차 수강신청
8. 18.(화)~ 19.(수)	2020학년도 2학기 2차 수강신청
8. 28.(금)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Contents

02 | 미래에 단상 02 | 교수동정 03 | 인문대 소식 04 | 인문대 소식 / 학과·연구소 소식 08 | 신간소개

인문대학 시습관 리모델링 공사

2019학년도 여름방학기간 동안 인문대학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인문관 5층 시습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9월 4일 인문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오픈식을 가졌다. 기존의 시습관은 대형강의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평면배치로 제약이 많았다. 시습관을 계단식의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함으로써 대형 강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학술행사 및 전체교수회의 등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 전



공사 후

인문대학 학술심포지엄 개최

2019년 12월 6일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문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유명민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하여 '5G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학술특강을 개최하였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인문대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낮익지만 낯설었던
한 해

국어국문학과
손남훈



달마사 아래 너럭바위, 장승터, 문창대, 미리내골, 지금은 사라진 인문대 앞 딸기동산... 굳이 에드워드 램프나 이푸 투안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부산대학교 곳곳은 내게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기억과 맥락, 실존성을 담보하고 있는 '장소'다. 어느 별 좋은 날에 혼자 올라가 몸을 숨기듯 드러누웠던 너럭바위, 동기의 결혼식이 열렸던 장승터,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던 문창대, 지금의 아내와 함께 하염없이 바라봤던 미리내골, 동기들과 장기자랑을 준비했던 딸기동산은 스무 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모르던 내 발걸음을 온전히 받아준 소중한 곳들이다.

작년 이맘때쯤, 나의 초상이 새겨진 이곳들을 혼자 조용히 돌아보면서 작은 결심 하나를 더 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지나가는 공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말없이 받아준 이곳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문학이 결국 타자를 향한 말건넬이라 한다면, 그 길을 열어주고 견도록 중용해 준 지금, 여기는 앞으로도 나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한 이곳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은 아직 서투르기만 한 내겐 쉽게 통합되지 않았다. 실수도 많이 했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미적거린 일도 많았다. 학과 교수님을 비롯한 인문대의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과 조언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해매고 더 서툴렀을 것이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럼에도 모교인 부산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학생들에게 학문의 즐거움을 알려주며, 지식 뿐 아니라 성품 또한 훌륭하신 여러 인문대 교수님들을 뵈 수 있게 된 것도 내겐 과분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낮익지만 낯선 이곳에서 '장소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지역이 차별받고 힘없는 자가 흠대받는 시대를 문학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렇게 변방의 북소리를 울리는 사람이 되어 타자들의 편에 나란히 서 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영박물관 도서관을 3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았다는 칼 마르크스처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존재 양식의 시계(視界)를 공부만큼 튀워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많은 글들을 통해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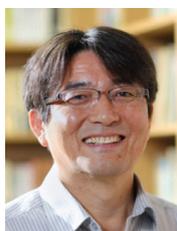
평소에 존경하는 한 선생님께서 '교수는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지나가듯 말씀하신 적이 있다.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에 우위에 서라거나 갑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말과 행동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타자와 함께 하는 사람, 장소의 실존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승화해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언젠가 먼 훗날 이 글을 다시 읽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조금이나마 되어 있었으면 한다. 이곳에서 나는 그러한 꿈을 꿀 것이다.

정년퇴직 교수



일어일문학과
오경환 교수

오경환 교수는 1985년 4월 2일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1988년 10월부터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약 37년간 일어일문학과 소속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일본 근대 문학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小林秀雄와 保田與重郎의 소설과 비평에 관한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해 왔다. 주요 실적으로는 『影響と離反 - 小林秀雄の初期小説論 -』(2009.02, 일본근대학 연구 vol.23), 『小林秀雄「志賀直哉」論』(2011.08, 일어일문학 51집), 『沈黙と疲勞の美學 - 小林秀雄と石窟庵 -』(2011.11, 일본어문학 vol.55), 『小林秀雄「無常といふ事」論 - 古典と知の生起 -』(2017.02, 일본어문학 76집) 등 다수가 있다.



사학과
최경국 교수

1995년 3월, 부산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이래 금년 2월까지 약 25년 동안 동양사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중국농업사와 생태환경사, 농민생활사를 주된 연구방향으로 삼아 그와 관련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중국사학회학원 역사연구소의 객원교수를 역임하였고, 북경대학 사학과 초빙교수로서 중국 고대사와 중국 생태환경사를 강의한 바 있다. 향후 명예교수로서 꾸준히 후학을 양성할 예정이다.

신임교수 부임



일어일문학과
한정선 조교수

한양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에서 1920년대 일본 문학과 영화의 상호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후에는 일본 영화소설, 그리고 1920-30년대 일본 탐정소설과 미디어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2017년부터는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재일코리안 미술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일본 영화소설의 전개 양상-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1930년 전후, 탐정소설전집의 출판광고와 '대란포'의 탄생」, 「태동기 재일조선인 미술작품에 나타난 재일의식의 양상」 등이 있으며, 『韓国における日本文学翻訳の64年』(出版ニュース社, 2012), 『江戸川乱歩新世紀』(ひつじ書房, 2019) 등에 집필자로 참여했다.

인문대 교수 연구년 및 장기과건

이 허순우	국어국문학과	1년	2020.3.~ 2021.2.
이 장경철	영어영문학과	1년	2020.2.~ 2021.2.
이 이승이	불어불문학과	1년	2020.3.~ 2021.2.
이 김중수	독어독문학과	1년	2020.3.~ 2021.2.
이 양영란	노어노문학과	1년	2019.9.~ 2020.8.
이 권순복	언어정보학과	1년	2020.3.~ 2021.2.
이 배진성	고고학과	1년	2019.9.~ 2020.8.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교양부문 우수도서 선정

학술부문	중어중문학과 김혜준 교수	홍콩문학론: 홍콩 상상과 방식
	철학과 박정심 교수	단재 신채호: 조선의 아, 비아와 마주서다
교양부문	중어중문학과 김영옥 조교	해상화열전 상, 하

인문대소식

2020학년도 1학기 학과장 명단

2020학년도 제1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과	류숙영 교수	2020. 2. 1.
중어중문학과	남덕현 교수	2019. 9. 1.
일어일문학과	노선숙 교수	2020. 3. 1.
영어영문학과	김유곤 교수	2020. 1. 15.
불어불문학과	박형섭 교수	2020. 3. 1.
독어독문학과	서은주 교수	2019. 2. 1
노어노문학과	양민종 교수	2019. 9. 1.
한문학과	김남이 교수	2020. 3. 1.
언어정보학과	권연진 교수	2019. 3. 1.
사학과	서영건 교수	2020. 2. 1.
철학과	손영삼 교수	2020. 3. 1.
고고학과	이창희 교수	2020. 3. 1.
인지과학 전공주임	윤애선 교수	2020. 3. 1.

인문학 최고과정

인문학 최고과정 2학기 학술현장답사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인문학 최고과정 학술현장답사가 김해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김해는 가야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가야와 관련된 고분, 주거지, 패총 등의 유적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구지봉,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분산성 등을 답사하며 가야의 뿌리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인문학 최고과정 제5기 수료식 개최



인문학 최고과정 제5기 수료식이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상남국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수료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학장 인사말, 부총장 격려사, 수료증·표창장 수여, 기념사진,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료생들은 한 해 동안 다양한 인문학 분야로 이루어진 총 24개의 강좌를 이수하면서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동아시아지식학 구축 및 학술역량강화 사업>

동아시아지식학 정기/집중/학술강좌 개최

동아시아 및 동아시아 주변국의 문학문화역사·철학·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지난 2학기 학기 중 정기강좌 78회, 동계방학 중 집중강좌 64회, 또한 국내외 학자를 초청하여 학술강좌 19회를 개최하였다.



제 1, 2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 개최

학문후속세대들의 연구 다양화와 학제 간 융합, 방법론 모색에 기여하고자 인문대학에서는 2019년 9월 20일 인문대학 시승관에서 <제1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을, 2020년 1월 14일 상남국제회관 효원홀에서 <제2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동계 해외체험 팀프로젝트 <동아시아를 향해, 세계를 향해> 시행

현장밀착형 동아시아지식학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동아시아지식학을 주제로 탐방 국가 및 활동 내용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해외체험을 수행하는 동계 해외체험 팀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4인을 1팀으로 구성하여 총 29팀이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6팀이 선발되었다. 각 팀은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중국 운남성 및 청도, 일본 홋카이도, 러시아 사할린, 대만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탐방하였으며, 체험 결과는 학생들이 직접 영상 콘텐츠(UCC)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전기 인문대학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 ▶ **진방**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박소영]
한·중 수여 구문 대조 연구
- ▶ **김석진**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박소영]
한국어 분열문의 정교구조와 문장구조
- ▶ **노경자**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한태문]
한글편지에 반영된 왕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욕망 -순원왕후와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 ▶ **이쌍**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권경근]
한중 문장 종결 억양의 대조 연구
- ▶ **나카지마 코마코**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 오경환]
柳田國男の日本近代文学観-笑いの文学としてのヲコ論を通して-
- ▶ **손아영**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이재성]
『모비딕』을 통하여 본 포스트모던 윤리와 불교의 공 사상
- ▶ **김현식** (고고학과) [지도교수 : 신경철]
남한 청동기시대 토기와 주거지의 변천연구
- ▶ **이상규** (고고학과) [지도교수 : 임상택]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어로문화 변동과정 연구
- ▶ **심현철** (고고학과) [지도교수 : 김두철]
新羅 積石木槨墓 研究

학과·연구소 소식

1 고고학과

고고학과 추계정기답사-경주 및 경남일대-



고고학과에서는 2019년 9월 17일 ~19일간 정기추계답사를 다녀왔다. 경주 및 경남 일대 등 많은 지역을 답사하며 유적지와 유물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답사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고 배움과 더불어 교수님, 학우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고학과 30주년 기념 행사

고고학과에서는 30주년을 맞아 1회 졸업생부터 재학생까지 두루 모여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부산대학교 내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명예 교수님들과 선후배가 모두 모여 함께 축하하고 고고학과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1 국어국문학과

제21회 전국 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 개최

2019년 9월 28일에 부산대학교 주최 국어국문학과 주관으로 제21회 전국 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올해 백일장은 산문부 170명, 운문부 97명으로 총 267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엄격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13명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글제는 '압정'(운문)과 '주머니'(산문)이었으며 장원은 송호고등학교 2학년 서은영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번 백일장에는 시인이름님이 초청 강연을 하였다. 시를 만나고 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국어국문학과 학술제

국어국문학과에서 2019년 12월 1일에 학술제를 개최하였다. 국어국문학과 학부 학술 동아리인 고전문학연구회, 배달말연구회, 귀성문학회가 1년 동안 연구하고 창작한 작품을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해 취업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해강중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11학년 허선아, 독립서점 북그리움을 운영하는 05학번 김만국이 진로와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방향에 관해 많은 조언을 들려주며 학생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1 노어노문학과

2019 노어노문학과 가을 등반

2019년 9월 26일에 노어노문학과 가을 등반이 있었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금정산을 등반하였다. 교실에서의 수업에서 벗어나 산을 함께 오르면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풀 수 있었으며 교수님과 학생 사이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유대도 다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졸업생 현직자 진로 취업 특강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인문관 215호에서 단과대학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인 졸업생/현직자 진로취업특강이 진행되었다. 노어노문학과 졸업생인 98학번 김백중, 13학번 정지혜, 김슬기가 강사로 왔으며 이들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로와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점을 들을 수 있었다.



부산대학교 러시아센터, 부산광역시 유라시아 협력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019년 11월 12일, 부산대학교 러시아센터가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 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두 센터는 더욱 긴밀하게 업무를 함께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두 기관은 유라시아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교육 및 교류사업, 아카이브 조성 등을 통해 유라시아를 소개하고, 유라시아 지역과의 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경주지역 문화탐방

독어독문학과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독어독문학과 경주지역 문화탐방>을 위해 경주시를 방문하였다. 국내의 지역문화 소재지를 방문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학과 구성원 간 친목 도모의 시간을 위해 기획된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 대릉원 등 역사유적지를 비롯하여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채로운 체험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9 독문인의 밤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2019년 11월 28일 <2019 독문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과 학과 구성원을 위한 시상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학과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1 불어불문학과

2019 언어, 언어학의 지평 넓히기

2019년 12월 4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두 차례 초청강연이 열렸다.

- 1). 인공지능시대의 음성정보기술(이용주, 원광대)
- 2). 프랑스 미디어의 현실재구성(최유선, 서울대)



1 사학과

2019 학년도 2학기 학술소모임 답사

학과 학부생들은 자체적으로 2학기 동안 경주, 대구로 답사를 진행하였다. 9월에는 경주 국제문화재산업전에 참가하여 문화재 관련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잡페어 및 채용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향후 진로 설정과 취업준비에 도움되었다. 또한, 학과 학부생 학술소모임 중 하나인 '플레이'는 위안부를 위한 기부 단체인 '희움'역사관 개관식에 참여하고, 주변 지역의 근대 문화재 답사를 통해 대구 지역의 근대화 와 여성사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제1회 부산대-정주대 대학원생 인문학교류 학술대회



지난 학기 체결한 중국 정주대학 역사학원과의 학술교류협정의 일환으로 10명의 정주대학 역사학원 소속 대학원생이 2학기 동안 부산대 사학과 대학원생과 함께 생활하였다. 11월 28일에는 학술대회를 진행하여 그동안 서로 공부한 비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회 부산대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학원생 학술교류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평소 전공이 달라 교류가 어려울 수도 있었던 대학원생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도모할 수 있었고, 특히 현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과학생들에게 있어 유익한 조건과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I 언어정보학과

증강현실 기반의 의사소통장애 재활시스템 구현과 적용(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부산대학교 '증강현실 기반의 의사소통장애 재활시스템 구현과 적용' 학제간융합연구 사업단(연구책임자 : 권순복 교수)은 지난 2020년 1월 3일 '증강현실 기반 의사소통장애 재활시스템 적용을 위한 활성화 및 방향 모색'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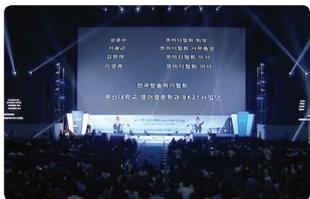
I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



영어영문학과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2019학년도 2학기 동문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매학기 영어영문학과는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 제7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번역 지원



2017년 5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하 '부코페')측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영문과 BK21+사업단은 올해 8월 23일-9월 1일 열린 제 7회 부코페에서 번역 자문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부코페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 행사로 성장하고 부산 지역 문화콘텐츠 발전에도 기여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번역 자문 및 서비스 제공: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이 브로셔 및 홈페이지 한영번역

2019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BK21+ 전문가 특강



'트랜스미디어지식학'이라는 주제 아래 영문과 BK21+사업단 번역학내,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3차(12/13) 특강에서는 중앙대 영문과 김해연 교수를 초청하여 <디지털시대의 담화분석의 이해와 응용>을, 4차(12/27) 특강에서는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김무규 교수와 함께 <미디어, 트랜스미디어, 인터미디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12월 13일에는 부산대 영문과 장경철 교수의 <영어 대명사 사용의 이해와 트랜스미디어 담화분석>이라는 강연회를 열어 트랜스미디어와 번역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I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답사 및 세미나

2019년 11월 7일 진해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답사를 다녀왔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길 탐방'을 주제로 한 투어 참가를 통해 진해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12월 5일에는 대학원생 및 수료후 연구생을 대상으로 '일본 근대 문학 비평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의 일어일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 중어중문학과

2019 중어중문학과 졸업생 초청 취업 특강 개최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019년 11월 14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졸업생 초청 취업 특강을 개최하였다. 11월 14일에는 곽정섭(84,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 천혜영(0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졸업생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최하훈(82, 신성모든텍 대표), 홍창표(86, KOTRA), 윤지용(09, 부산신항만(주))졸업생을 초청하여 취업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 특강은 졸업생들의 취업 준비와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I 철학과

2019학년도 철학과 추계 학술답사

2019년 9월 20-21일 간 "여수 밤바다와 미적 공감"이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여수 일대를 돌아보며, 여수가 가진 '낭만(Romantics)'적 분위기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미적 공감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학술답사가 이뤄졌다. 갑작스러운 태풍 상륙으로 21일 일정이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여수 바다가 가진 다른 모습을 체험한 색다른 추억을 남겼다.



2019학년도 철학과 콜로키움

2019년 11월 8일에 “고향 없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조창오 신입교수 초빙 기념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현대인의 “고향부재”의 삶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고향’의 철학적 지평을 미학적으로 논할 수 있었던 자리였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철학과 신입 교수에 대한 철학과 구성원들의 환영의 자리이기도 했다.



SAM분야 2019학년도 학부·대학원 연계 콜로키움

2019년 12월 5일에 이영철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선험·선천·초월’이라는 주제로 학부·대학원 연계 콜로키움이 열렸다. 철학 전공 학부, 대학원생들에게 중요하지만 ‘transzendental’(선험적-초월적) 번역 문제로 혼란스러운 ‘선험·선천·초월’ 개념을 언어철학적 맥락에서 그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더불어 관행이 아닌 생산적인 철학적 사유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한문학과

한문학과 추계답사



한문학과에서는 2019년 11월 6일 ~11월 8일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도 일대로 추계 답사를 다녀왔다. 돈암서원, 윤증고택, 종학당, 백제문화단지 등 충청도 일대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저녁에는 선배와 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 진로 교류 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문학과 식구들이 모여서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해외학자초청세미나

한문학과 BK21+사업단에서는 2019년 12월 20일과 2020년 1월 31일 시립관과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에서 저명학자 초청강좌를 개최하였다. 12월 20일에는 몽골 국립대학의 ARIUNBAIGALI Boldbaatar 교수를 초청하여 몽골 내 한국학 연구 상황과 몽골의 고전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1월 31일에는 게이오 대학의 사토 미치오, 호리가와 다카시, 고야마 린타로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상고시대부터 근대까지의 한문학과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I 인문학연구소

교류와 열린 특강

제 1강 유물로부터 시간을 읽어내는 방법

일 시 2019.11.7. (목)
강연자 이창희(부산대)

제 2강 스크린 위의 냉전 - 미국문화원(USIS)과 영화

일 시 2019.12.5. (목)
강연자 김려실(부산대)

지구화시대 모빌리티의 현상 - 갈등을 확대하는 지평을 찾아

일 시 2019. 12. 23. (월) 장소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

언어, 갈등의 증언 : 메타언어의 부재상황에서

강연자 서민정(부산대)

데리다의 “친함(oikeiosis) 없는 우애”와 적대 없는 갈등의 정치

강연자 김은주(부경대)

모빌리티의 정동과 문화의 자리 : 떠남과 만남, 그리고 정중동

강연자 최성희(부산대)

이동사회와 이방인 : 환대와 혐오 사이의 트랜스내셔널 이주자

강연자 이용일(대구교대)

I 점필재연구소

<2019년 밀양 전통 인문고전 축제> 외 행사 개최

<점필재 인문 아카데미(총 8강)> - 밀양의 인문전통, 조선 오백년의 정신

일 시 2019.9.3. ~ 2019.10.8.
장 소 밀양관아

<점필재문화한마당> - 3.1운동 100주년 기념 밀양 청소년 골든벨

일 시 2019.10.18. ~ 2019.10.19.
장 소 밀양 영남루

<김해학술대회> - 근대전환기 김해 전통 지식인의 삶과 학문

일 시 2019.11.15.
장 소 국립김해박물관

<제11회 점필재학술대회>

일 시 2019.11.27.
장 소 밀양청소년수련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교류 협정



2019년 11월 15일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학술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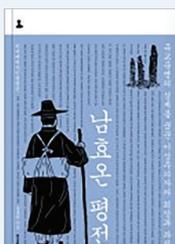
디지털 휴머니즘 -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올리안 니다-뤼멜린, 나탈리에 바이덴펠트 저 | 김중수 역 |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2020

이 책은 올리안 니다-뤼멜린과 나탈리에 바이덴펠트가 공동으로 저술한 『디지털 휴머니즘,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실리콘 밸리 이데올로기’에 관한 비판이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인간성과 인간의 윤리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지,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짓는 도덕과 윤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사회적 합일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까,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까? 지금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간이 이미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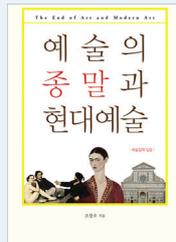
타이완신문학사
 천팡밍 저 | 고운선 · 김혜준 · 성옥례 · 이현복 역 | 고양 : 학교방 | 2019

타이완 신문학은 1895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시기, 1945년에서 1987년까지 국민당 정부의 재식민시기, 1987년 계엄 해제 이후 현재까지의 포스트식민시기라는 세 단계를 거쳤다. 일제강점기의 타이완 신문학은 타이완 작가를 주체로 하면서 항의 또는 항쟁의 목소리로 충만한 것이었다. 국민당 정부 하 계엄시기의 타이완 신문학은 중화민족주의와 반공정책을 주조로 하는 관방문학과 타이완 사회의 생활 현실과 권위 체제 비판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문학이 대립 경쟁했다. 계엄 해제 이후의 타이완 신문학은 타이완 의식 문학, 여성문학, 원주민문학, 군인가족 동네 문학, 동성애문학이 동시에 병존하면서 모든 문학 작품이 각기 종족 · 계급 · 젠더의 맥락 속에서 검증받게 되었다. 이 책 《타이완신문학사》는 유사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가진 타이완과 한국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다.



남효온 평전 - 유교문명의 성세를 꿈꾼 이상주의자의 희망과 좌절
 정철헌 | 한겨레출판사 | 2020

세상을 향한 울분과 우울한 자조 속에서도 기개 있는 붓끝으로 시대를 증언하는 기록을 남긴 남효온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사육신의 이름을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한다. 조선 초기, 거듭된 정변으로 일그러진 사회를 유교문명 국가로 바로잡고자 했던 이상주의자, 남효온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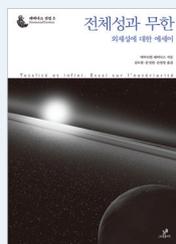
예술의 종말과 현대예술 - 예술철학 입문
 조창오 | 상상창작소 봄 | 2019

칸트, 헤겔, 분석미학의 관점을 소개하면서도 예술 철학의 중요한 개념인 ‘예술 정의’, ‘미와 숭고’, ‘예술작품’, ‘미술관’, ‘매체’, ‘현대예술’ 등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이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서양 미술사 전반을 이해하는 커다란 틀을 제공한다. 이 책에 소개된 ‘예술재현론’, ‘예술표현론’, ‘고전주의’, ‘낭만주의’ 같은 범주들은 현대 이전 미술을 해석하는 바탕이다. 이에 반해 현대예술은 ‘예술종말론’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입문서는 ‘예술종말론’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예술철학의 다양한 개념과 예술사 전반을 이해하려 한다.



마쓰이본 이즈미시키후집
 이즈미시키후 저 | 노선숙 역 | 학교방 | 2019

11세기 일본 가단(歌壇)에서 활약한 이즈미시키후의 와카(和歌) 가운데 칙찬 와카집 등에 선정된 270여수를 모아 엮은 『마쓰이본 이즈미시키후집』을 한국어로 옮긴 역서.



전체성과 무한 -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에마누엘 레비나스 저 | 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역 | 그린비 | 2018

이 책에서는 레비나스 철학의 중심 개념들, 이를 테면 타자, 전체성, 무한, 초월, 책임, 향유, 맞이들임, 얼굴, 근접성 등이 망라되어 등장하며 또 체계적으로 엮여서 다루어진다. 『전체성과 무한』 이전의 저술들에서는 여기에서야 비로소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는 레비나스 철학의 본격적인 특징을 만나기 어렵고, 이후에 레비나스가 내놓은 책들은 여러 기회에 쓴 글들을 모아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체성과 무한』만큼 자체의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레비나스 사상의 독특함뿐만 아니라 그 열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책 『전체성과 무한』을 반드시 살펴야 하는 이유다.

I 점필재연구소



소호당집 5, 6
 김택영 | 김홍영, 남춘우, 정석태 역 | 도서출판 점필재 | 2019